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6.24. ~ 6.30.)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신 29 - 수 2	시 119:49 - 125
	개인	사 56 - 62	마 4 - 10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교회 - 교회(3)		
	<p>에베소서 2장 20-22절</p> <p>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p> <p>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p> <p>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p>		



마태복음 4장 / 공생애 시작**개요**

- 1-11 시험 받으심
- 12-17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 18-22 제자들을 부르심
- 23-25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십니다(1절). 40일을 금식하신 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2-11절).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로부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12-17절).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또 부르십니다(18-22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입니다(23절).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아와 따릅니다(24,25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요한이 잡히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한 제자들도 부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양무리를 모으시고 각 사람을 세우 가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각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그 나라의 은혜로 이끌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 산상수훈**개요**

1-12 팔복

13-16 소금과 빛

17-48 율법 해설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천국 백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1-12절).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부르십니다(13-16절). 또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17-20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까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마음의 문제까지 확장됩니다(21-32절). 인간의 약함으로 맹세를 금하시며, 인간의 약함으로 복수를 금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33-47절). 이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온전함입니다(48절).

자녀의 온전함은 부모를 닮는 데 있으며,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배우며, 그 마음이 나 자신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기에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그 부르신 부르심대로 살아갈 줄 압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개요**

1-18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19-34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신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은밀하게 합니다(1-4절). 기도도 골방에서 합니다(5-15절).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16-18절).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물을 섬기지 않으며, 목숨을 위한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25-31절).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3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오늘 내 생애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삶입니다(33,34절).

신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 곁에 가까이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 하나님 편**개요**

1-12 경건한 삶

13-29 두 편

재판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1-5절). 그렇다고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6절). 다만 우리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구하며 살고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7-12절).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13절).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14절). 그 길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15-20절). 그 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21-23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24-27절).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택을 요구하며 마칩니다(28-29절).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실 때 두 편을 가르치시고 한 편을 선택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선택하고 살아야 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편에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의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폭풍과도 같은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 고치시는 분**개요**

1-17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18-22 예수님이 가는 길

23-34 예수님이 가진 권세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1-4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5-13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14,15절),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16,17절).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지만 그분은 머리 돌 곳도 없는 생을 살고 계셨습니다(18-22절). 예수님의 권세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며(23-27절), 귀신들도 두려워 떨니다(28-34절).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언뜻 보기에 많은 사람의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좋을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은 예수님을 떠나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에서 그런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도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좁은 길을 걸으신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힘주시옵소서.

6월 29일(토)

수1

시120-122

사61

마9

마태복음 9장 / 죄를 사하시는 분

개요

1-17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18-38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1-7절). 그 권능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8절).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며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음을 밝힙니다(9-13절). 예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위한 새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14-17절). 예수님은 열두 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18-26절), 두 맹인을 고치시며(27-31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십니다(32-34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35-38절).

예수님은 단지 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병인 죄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공훈의 목자이셨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공훈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추수할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공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 십자가의 길**개요**

1-15 열두 제자

16-42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자신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1절). 열두 사도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야고보와 다대오, 시몬 및 가롯유다입니다(2-4절).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십니다(5-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아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할 것을 당부하십니다(16절). 그리고 핍박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17-23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24-33절). 십자가의 길에는 싸움이 있으나(34-39절), 그 끝에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40-42절).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 길에는 두려울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목할 것은 두려워 할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이 녹록치 않으나 주가 주신 힘으로 그리고 도우심으로 갈 줄 믿습니다.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내 말로 이야기해보세요.
2.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3. 오늘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기도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4. 한 주간 읽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5. 한 주간 동안 만난 하나님 또는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주를 내다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